

현대 패션 비평 특성에 관한 연구

박수진 · 하지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Sujin Park · Jisoo Ha[†]

Dept. of Fashion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ober 20, 2022; Revised (December 7, 2022; April 4, 2023); Accepted April 24, 2023

Abstract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tends to rely solely on the established art criticism process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fashion. Thus,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uniqu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criticism by recognizing it as an independent field in contemporary art with its own social significance. This study will first apply traditional art criticism models to analyze and explore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s empirical content before uncovering the uniqueness of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by content analysis.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discusses not just physical objects but various topics and ideas, as well. Accordingly, the existing criticism model was modified in this study to fit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and organized into five stages: description of historical fashion, form description, external evaluation, interpretation, and internal evaluation. Commerciality, the human body, coordination, the critic's individuality, trends, and fashion-related persons were identified as key factors of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s uniqueness. In conclusion, rather than build a single contemporary fashion model, this study found it more effective to create individual fashion criticism models suitable for detailed fields, as these enable the discussion of multi-faceted topics in the fashion field.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 meaningful guide for the fashion discourses.

Key words: Fashion criticism, Art criticism, Contemporary fashion, Art; 패션 비평, 예술 비평, 현대 패션, 예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수년에 걸쳐서 패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패션에 관련한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잡지나 TV 등 일부 지배적인 패션 매체의 판단과 평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그대로 패션 대상을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대에는 누구나 인터넷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저택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특정 패션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드러나고 공유되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예술의 한 장르인 패션은 그 대상의 미적 가치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값을 매길 수 없다. 다양한 의견 피력에 의해 발생하는 패션 대상에 대한 대립적인 논쟁을 합리적이게끔 이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패션 대상의 미적 가치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리가 제시되는 것이다. 패션을 이해하고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sooaha@snu.ac.kr

이나 원리가 부재하다면 각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선호를 선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패션 대상에 대하여 각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로 주관적인 선호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패션의 미적 가치 정도에 대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개인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패션 평가의 기준이나 원리가 요구된다.

합리적인 평가는 곧 비평으로 이어진다. 예술에 대한 비평이 평가적 본성을 지닌다고 주장한 노엘 캐롤(Noel Carroll)의 논증과도 맞닿는다. Carroll(2009)은 예술 비평은 비평 대상을 평가하려는 본성을 가지며,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원리를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비평 대상을 평가할 때 비로소 예술 비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 비평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술의 한 장르로 여겨지고 있는 패션의 비평 원리나 기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을 단순히 소비재로 여겼던 과거의 전통 예술관을 바탕으로 패션이란 미적 가치를 논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단지 매겨진 가격이 곧 가치를 대변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수의 패션 비평 관련 연구 역시 패션을 그저 미술 비평의 연장선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패션이 하나의 현대 예술 장르로 충분히 자리매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비평의 틀을 갖추지 못하는 가운데 패션 비평은 기존의 미술 비평 절차에만 입각해 패션만이 가지는 특성이 적절히 고려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이라는 개념 아래 문화와 음악, 미술, 영화 등이 모두 고유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진지한 비평 체계가 전통적으로 설계되어 작동하고 있다. 패션도 단순히 예술로만 정의하여 예술에 흡수된 영역으로 바라보기보다 패션과 예술을 각각 개별적인 역사적 실체로 인지하고 패션 자체를 고유의 사회적 구성에서 나온 담론으로서 인정하며, 비평에 있어서도 패션의 독자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상품 이상의 영역인 패션이 미학적 실천으로 진지하게 수용되기 위해서 진지한 비판이 요구된다. Kim(1998)은 패션 비평이 예술계의 지성적 논의를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션 자체를 현대 미학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비평적 기반 위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

다고 언급하였다. Steele(2012)은 패션이 예술로 간주되기 위하여 패션에 대해 특수하게 문화 자본을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패션 중재자들과 문화적 창업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패션의 생산자뿐 아니라 패션 영역 내의 비평가, 큐레이터, 편집자 등과 같은 문화적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예술과 같은 개념으로 중재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제도로서 패션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패션의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패션 고유의 담론 체계를 고려하여 패션만이 가지는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비평 모델의 설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및 문제

패션 비평을 포함하는 패션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가 있다. 저널리즘이란 넓고 좁은 갖가지 의미가 있어 의미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비평을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원래는 신문과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작업 활동을 의미하며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보도, 논평, 해설 활동 등을 가리킨다(PMG, 2022). 패션 저널리즘이란 패션의 생산이나 유통에 대한 관여, 트렌드 전달과 함께 패션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논평과 사유를 문화적, 산업적 측면에서 담아내는 행위이며(Son & Lee, 2010), 패션과 관련된 모든 언론 활동을 가리킨다. 그 중 패션 저널리즘의 큰 축을 담당하는 패션 비평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패션 비평에 대한 연구는 대중에게 패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패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패션 비평 혹은 복식 비평에 관한 연구(Choi, 2014; Kim, 1998; Lee, 2006; Miller, 2007)는 대부분 예술 비평 중 미술 비평 모델을 바탕으로만 진행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패션 비평 연구들은 미술의 특성만을 반영한 미술 비평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술과 차별화된 패션만의 고유한 특성이 전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 비평 체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현대 패션 비평을 현대 사회에서 고유한 의미를 갖는 대상이자 예술의 독자적인 분야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며, 현대 패션 비평의 사례들을 분석해 패션 비평만이 갖는 고유한 역할과 특성을 밝히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현대 패션 비평의 양상을 정리하고 일차적인 현대 패션 비평 모델을 정립해 한계점을 파악하며 둘째,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로서 미술 비평과 차별화된 현대 패션 비평의 특수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패션 중재자들이 패션의 문화 자본 축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 예술의 한 부분으로 패션을 이해하는 관점을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함께 기대하는 바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술 비평

비평이란 ‘criticize’의 어원인 그리스어 ‘krinein’의 ‘판별하다, 선별하다, 추출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Min, 2008). 비평을 하는 행위는 인간이 영위하는 일상의 영역에 널리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비평 활동은 대상에 대한 결점을 찾아내고 비판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에서 비평을 수행하는 능력이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등의 관계 내에서 끊임없이 발휘되고 있다. 인간 생활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판별, 선택의 능력이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비평과 같은 선택적 가치 결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비평을 수행하는 방법은 비평하고자 하는 대상의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미술 비평은 일반적으로 1759년부터 1781년까지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에 의해 작성된 『Salons』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Park, 2003). 미술 비평은 미술 작품이 등장함과 동시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적 미술 비평의 활동은 저널리즘이 발달함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역사적으로 미술품이 귀족과 같은 지배층, 권력층의 전유물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 계급도 자유롭게 미술품을 소유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술가와 미술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대중 사이의 중개자로서 비평가가 등장했으며 미술 비평이 독립된 분야로 정착하게 되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며 미술 박람회와 저널리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며 전문 미술 비평가라는 직업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 미술 비평가로는 존 러

스킨(John Ruskin), 스탕달(Stendhal), 샤를 보들레르(Charles P. Baudelaire), 콩쿠르(Goncourt) 형제가 있다. 점차 미술 비평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며 미술 교육 운동(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에 의해 1960년대부터는 교육 과정에도 미술 비평이 도입되어 학생들 개개인의 미술 비평 능력 육성을 시작하였다.

미술 비평에 대한 다양한 연구 역시 196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술 비평이 곧 해당 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의 규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미술 비평의 대부분은 미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서구에서는 18세기에 취미에 대한 기준을 논하는 것으로 비평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비평가 역시 미학적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빈번했다. 때문에 암묵적으로 미학이 존재하지 않는 미술 비평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미술 비평 모델 설립을 위하여 바탕이 되는 대표적 미학 이론으로는 몬로 비어즐리(Monroe Beardsley), 해럴드 오스본(Harold Osborne), 제롬 스톨니츠(Jerome Stolnitz) 등의 이론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진 여러 미술 비평 연구 중 Feldman(1971)에서 제시한 미술 비평 모델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명료하여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Feldman(1971)은 미술 작품에 대한 미술 비평의 작업 방법을 순차적으로 기술, 분석, 해석, 평가(혹은 판단)의 총 4단계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단계인 기술은 미술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보이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단계로, 작품에 대한 성실한 보도의 작업이다. 눈으로 ‘읽는’ 작업을 통해 시각적인 것과 촉각적인 상징 모두를 언어의 기호로 변환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으로 첫 단계와 동일한 기술의 형태이지만 보다 더 기초적인 조형적 요소에 대한 것을 수집한다. 예를 들어 선, 형상, 색상, 채색의 질과 같은 것들의 상호 관계나 조직을 기술하여 시각적인 조형적 특질을 따져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두 단계에서 기술의 형태로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나 의미에 대하여 비평가 나름대로 해석한다. 작품의 제작 의도나 작품에 내포된 작가의 생각, 작품의 의미 등에 대해 논하며 해석을 도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작품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비평 대상인 미술 작품만을 단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 미술 작품과 관계에서 해당 작품에 대한 등급을 매기며 작품으로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 평가한다. 작품의 독창성과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가 중점적인 기준으로 평가된다. 작품이 지닌 요소로서 작가, 사회, 문화, 시대 등을 바탕으로 미술사적 맥락에서 작품의 가치도 함께 판단하고 평가한다. 펠드먼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 미술 비평 모델은 후대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

2. 패션 비평

다양한 비평의 영역 중 패션에 대한 비평은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패션은 주로 철학자나 도덕가 등에 의해 비판적으로 다루어져 온 주제였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비평은 항상 도덕적 비판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실상 패션 비평이 자리를 잡고 언론이라는 영역에서도 다루지게 된 시기는 1970년대이다.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젠더나 인종에 대한 정치적인 사항들이 전면에 드러나고 사회 문화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1960년대이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패션 비평이라는 영역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표현된 것은 1970년대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2세대 페미니즘 사상과 관련 글들이 패션 비평에 진입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시즌 별 패션 컬렉션에 대한 비평이 본격화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이전까지 예술계에서 논의된 패션 비평 글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과 달리 예술과 패션에 대한 담론이 극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Choi, 2014). 패션 비평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진정한 패션에 대한 글쓰기가 확산된 시기는 1990년대이다(Granata, 2021). 패션 비평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부에 급속도로 높아졌으며 이를 두고 Granata(2021)는 1970년대부터 20세기 말 까지를 패션 비평의 번영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패션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패션에 있어서 인쇄물과 디지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디지털 및 테크놀로지의 출현을 바탕으로 패션의 주거나 스타일 등에 있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났다.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패션의 다양성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맞물려 새로운 전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Hwang, 2013). 신문 등 공식적인 영역에서만 다루어지던 패션 비평이 패션 블로그와 같은 개인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비순차적

이고 쌍방향성의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의 이동으로 이는 패션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의 시대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패션 비평 미디어가 다양화되어 개인 SNS나 니치(niche) 패션 매거진들도 빠르게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 비평의 범위를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실제로 ‘패션 비평가(fashion critic)’라는 직업은 1994년 이후에 *The New York Times*에 정식 직업명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바 있으며 이는 이전까지 패션 비평 및 패션 비평가가 공식적인 영역에서 간과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패션을 20세기 말 이래로 바라보며 패션 영역에 있어 디지털 및 테크놀로지의 출현 역시 현대 패션 비평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 세계의 지리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며 디지털 미디어는 인간을 지구적인 단위의 초국적 패션 미디어 문화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패션 비평을 위한 모델을 구성하고자 시도한 초창기 연구인 Kim(1998)은 패션 비평의 모델을 양식 도출, 묘사적 특성 및 구조, 1차적 미적 특성, 가치 특성, 저차원적 해석, 고차원적 해석, 비판적 평가의 총 여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Lee(2006)는 앞선 연구의 결과를 양식 도출, 묘사적 특성, 미적 가치 특성, 외부적 해석, 사회문화적 해석, 비평 대상의 평가로 수정 보완하여 또 다른 여섯 단계의 패션 비평 모델을 제안하였다. Choi(2014)는 앞선 두 연구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묘사, 분석, 해석, 판단으로 새롭게 네 단계의 패션 비평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펠드먼의 네 단계 미술 비평 모델을 여섯 단계로 세분화 및 수정 보완하여 계승한 Carney(1994)를 근간으로 현대 패션 비평 모델을 구성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Carney(1994)는 미술 비평을 위해 양식 도출, 묘사적 특성 및 구조, 1차적 미적 특성, 가치 특성, 저차원적 해석, 고차원적 해석, 비판적 평가의 여섯 단계를 설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 패션, 패션 비평의 범위를 협의적으로 패션 제품이나 스타일과 같이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패션 관련 현상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로 확장하여 설정하였다. 다양한 요소와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패션을 상정하였다. 설정한 현대 패션 비평의 범위에 따라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패션 전문 잡지나 패션 관련 미디어가 아닌 일반 신문과 일반 잡지에 실려 있는 패션에 대한 비평 기사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Kim(1997)은 패션 비평 기사 분석을 위해 미국의 대표 예술 잡지인 *Artforum*, *Art in America*, *Artnews*, *Art Magazine*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예술 관련 문헌 자료에서 선정한 것은 패션의 미학적 접근 부족을 이유로 패션을 예술의 측면과 미학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Kim(1997) 외의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등을 통하여 패션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해석을 시도했을 뿐 현존하는 패션 비평 기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예술계와 패션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확장된 시각으로 일반적인 비평계에도 패션이라는 분야를 비평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패션 비평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으로 패션 전문 잡지, 패션 관련 미디어가 아닌 일반 신문과 잡지의 패션 비평 기사를 수집하였다.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패션 비평을 다룬 Granata(2021)에서 1990년대 이후의 패션 비평 기사를 추출한 다양한 매체 중, 패션과 관련된 매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매체를 참고하였다. 국내의 일반적인 저널들은 패션에 관한 비평 기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패션 비평가의 기사인지 모호하며 연재의 기간이나 빈도 역시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The New York Times*와 *The Washington Post*가 본 연구의 사례 수집을 위한 매체로 선정되었다.

*The New York Times*의 공식 패션 비평가인 캐시 호린(Cathy Horyn)과 바네사 프리드먼(Vanessa Friedman), *The Washington Post*의 공식 패션 비평가인 로빈 기번(Robin Givhan)이 199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 작성한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총 121개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캐시 호린은 1986년 *The Detroit News*에서 저널리스트로 일을 시작했으며 이후 *The Washington Post*를 거쳐 1998년부터 2014년까지 *The New York Times*에서 패션 비평가이자 저널리스트로 ‘On The Runway’라는 도발적인 패션 블로그를 운영하였다. 바

네사 프리드먼은 *The New York Times*의 수석 패션 비평가이기 이전에 *Financial Times*, *New Yorker*, *American Vogue*, *Vanity Fair*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 바 있다. 로빈 기번은 비평 부문에서 풀리처 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패션에 관련하여 글을 쓰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풀리처 상이었다. 풀리처 위원회는 그녀의 패션 비평을 두고 패션 비평을 문화 비평으로 위트있게 전환시켰다고 언급한 바 있다(The Pulitzer Prizes, 2006).

분석 대상인 121개의 현대 패션 비평 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다. *The New York Times*의 캐시 호린에 의해 쓰여진 현대 패션 비평 기사는 먼저 *The New York Times* 공식 온라인 사이트의 검색창에 ‘Cathy Horyn’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이 때 나타난 4,868개 기사를 다시 ‘Fashion’ 범주로 필터링하였다. 811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 중 199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의 ‘article’로 다시 한 번 필터링하여 최종적으로 750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문자로 이루어진 기사 외 시각 자료로 이루어진 비디오, 이미지 슬라이드쇼, 인터랙티브 그래픽스(interactive graphics)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평은 단적으로 작품의 우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팬이 판결 이유를 제시하는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여 평가에 대한 이유가 평가 결과와 일체적, 조직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Sparshott(1967)에서는 비평의 본질을 언어적 행위(verbal performance)로 간주하며 비평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The New York Times*의 또 다른 공식 패션 비평가인 바네사 프리드먼에 의해 쓰여진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역시 캐시 호린의 것과 같은 절차로 수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1,155개가 선정되었다.

*The Washington Post*의 공식 패션 비평가인 로빈 기번의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수집은 *The Washington Post* 공식 온라인 사이트의 검색창에 ‘Robin Givhan’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보여지는 1,080개 기사를 다시 199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로 필터링하는 절차를 거쳤다. *The Washington Post*에서 ‘Fashion’을 하위 범주로 포함하는 상위 범주인 ‘Lifestyle’로 또 한 번 필터링한 276개 결과 중 ‘Robin Givhan’, ‘Robin Givhan Robin Givhan’, ‘Robin D. Givhan’의 단독 기사가 아닌 것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59의 사례가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The Washington Post*

의 'Lifestyle' 범주가 패션 뿐만 아니라 식생활, 주거 환경, 유아, 여행 등의 기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분석 중 패션과 무관한 기사일 경우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수집된 세 패션 비평가의 패션 비평 기사는 총 2,164개로 기사가 발행된 기간은 1995년 12월 4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였다. 2,164개 결과를 체계적 표집 방법(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일정하게 새로운 컬렉션이 발표되는 3개월 주기로 최종 선정하였다. 체계적 표집 방법이란 확률적, 객관적 표집 방법의 일종으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전체의 목록에서 일정하게 n번째 요소를 표본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규칙을 이용해 선택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만약 연구 대상의 전체 표본이 10,000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1,000개의 표본만을 얻고자 전체 표본에서 매 10번째 요소를 선정하는 것이다. 단순 무작위 표집과 유사하며 결과도 실제로 비슷하거나 동일하지만 체계적 표집이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조금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가장 처음 발행된 패션 비평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추출된 비평 기사 중 패션과 거리가 먼 내용일 경우 연구자가 판단하여 제외하며 해당 월의 두 번째 기사를 수집하였다. 각 연도의 비평가별 비평 기사의 총 개수가 4개 미만일 때에는 비평 기사의 발행 월에 상관 없이 모두 선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121개의 패션 비평 기사가 선정되었다. 매년 3월과 6월의 기사를 선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런던, 밀라노, 파리, 뉴욕 순으로 F/W 컬렉션이 2~3월 중 진행되며, S/S 컬렉션은 9~10월에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패션 컬렉션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관심이 매년 2~4월과 8~10월에 180~200%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An & Park, 2020). 6월과 12월이 선정된 것은 리조트(resort) 컬렉션과 프리 폴(pre fall) 컬렉션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 기존의 F/W 컬렉션과 S/S 컬렉션 사이에 스케줄로 고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연간 패션 스타일 트렌드 제시 기간이 확장된 것을 근거로 한다(Kim & Ha, 2018).

연구 문제 1과 2의 해결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실증적 사례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실증적 사례 연

구 방법이란 사례에 대한 관찰과 실험에 따라 상세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121개의 현대 패션 비평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및 단어 단위로 심층 분석하였다. 미술 비평 모델을 분석의 틀로 사용해 각 비평 기사를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미술 비평을 토대로 패션 비평 개념을 고찰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패션 비평 모델을 설계해왔다. 미술과 패션이 유사한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두 개념은 근본적으로 체계의 차이를 가진다. 주로 적용되는 미술 비평의 특성과는 차별화된 패션 비평만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미술 비평 모델을 기준으로 121개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사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미술 비평 모델과 맞지 않거나 미술 비평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대 패션 비평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술 비평 모델의 시초로 꼽히는 Feldman(1971)의 네 단계와 Carney(1994)가 제시한 일곱 단계를 통합 정리해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패션 역시 예술의 한 장르로서 예술과 패션이 유사한 언어를 공유한다는 시각 아래, 대부분의 패션 비평 관련 선행 연구의 바탕이 되는 미술 비평 모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다각적으로 분석 및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의 틀은 총 일곱 단계로 역사적 패션 스타일 도출, 묘사, 형태 분석, 형태 평가, 1차 해석, 2차 해석, 최종 평가로 구성되었다. <Table 1>과 같이 미술 비평 모델을 현대 패션 비평에 적용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조작적으로 정의해 사용하였다. 비평 기사의 제목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분석 시 직접 인용 및 간접 인용된 비평가 외 타인의 언어는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 and Guba(1985)가 제시한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관련 전문가 석사 1인 및 박사 1인과 함께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비평 모델을 활용한 현대 패션 비평 고찰

총 121개의 현대 패션 비평 기사를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총 일곱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하나의 비평 기

Table 1. Art criticism model for analysis of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articles

Feldman (1971)	Carney (1994)	Criticism model applied to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Operational definition of art criticism model for application to fashion criticism
	Style derivation	Derivation of historical fashion style	- Is there a description of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fashion history? - Are the affected styles, schools, times, regions, etc., mentioned? - Is there a description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garding the specific historical styles involved?
Description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Description	- Does it describe the basic formative elements such as colors, lights, lines, shapes, and textures as they are seen?
Morphological analysis	Primary aesthetic characteristics	Form analysis	- Is there more than a simple descri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ve elements mentioned?
	Value characteristics	Form evaluation	- Does it objectively mention the aesthetic value of the content and the form of the fashion product?
Interpretation	Low-level interpretation	Primary interpretation	- Is there a universally agreeable interpretation of the fashion products described based on what has been described above?
	High-level interpretation	Secondary interpretation	- Is there an interpretation based on the tendency, view, cultural, historical,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ext of fashion designers? - Is there an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human life?
Evaluation	Critical evaluation	Final evaluation	- Does it evaluate the aesthetic value of fashion products? - Does it judge the advantage over other fashion products? - Is it rated relative to other fashion products? - Is there a description for evaluating originality? - Is there a description for judging technical perfection?

사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주제에 대해 중복으로 다루는 것을 포함한 결과이다. 현대 패션 비평은 미술 비평과 유사하게 주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패션 제품이나 특정 시즌의 컬렉션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8년 S/S 시즌 생 로랑(Saint Laurent)의 컬렉션 평가나 2011년에 작성된 주요 4대 컬렉션에 대

한 전체적인 단상을 기술한 기사가 있다. 밀리터리 스타일 등 특정 패션의 조형성에 대한 평가 역시 포함된다. 패션 스타일에 대한 비평이며 이는 연구 대상으로 수집된 총 121개의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중 43개로 삼분의 일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2).

미술 비평과 유사하게 패션 제품이나 컬렉션 스타

Table 2. Application of criticism model based on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topics

Topic categorization	Appearance frequency (including redundancy)	Frequency applied to all 7 analysis factors (including redundancy)	Frequency not applied to all 7 analysis factors (including redundancy)
Fashion figures	32	3	5
Fashion marketing	28	2	7
Fashion system	13	0	6
Fashion aesthetics	2	1	0
Fashion style	43	10	0
Fashion issues	16	1	1
Event fashion	4	0	0

일에 대해 비평하는 것 외에도 현대 패션 비평은 보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사는 101개이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패션 스타일 관련 비평에 이어서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패션계 인물, 패션 마케팅, 패션계 이슈, 패션 시스템, 행사 패션, 패션 미학이 현대 패션 비평에서 다루지는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계 인물 범주는 잭 포즌(Jack Posen)이나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 등 특정 패션 디자이너의 생애와 그들의 패션 디자인 철학 등에 대한 것과 패션 디자이너 외 패션계에 포함되는 사진가, 모델, 패션 소매업체의 대표 등을 다루는 기사 등이 해당한다. 패션 기업이나 브랜드의 경영 전략 등에 대한 기사는 패션 마케팅으로 범주화 되었으며, 패션 업계의 흑인 비중 확대를 위한 노력과 같은 인종의 다양성 추구나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패션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기사 등은 패션 시스템으로 범주화 되었다. 패션계 이슈로 범주화 된 기사에는 정치인이 착용하는 패션이나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의 화이트 팬츠 수트가 내포하는 의미, 시위대 집단의 패션이 가지는 의미 등과 더불어 패션계의 가십(gossip)까지 포함한다. 행사 패션은 오스카나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CFDA) 시상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패션 등을 가리킨다. 패션 미학으로 범주화 된 기사에는 패션에 대해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패션 영역 내의 ‘추(醜)’에 대한 고찰이나 패션계에서 바비 인형이 가지는 미학적 의미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미술 비평의 대상이 미술 작품인 것처럼 현대 패션 비평에서도 패션 제품이나 스타일 등 물리적인 패션 대상에 대한 비평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패션 비평 기사 내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패션

스타일에 대한 비평이 전체 분석 대상에서 과반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현대 패션 비평이 미술 비평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현대 패션 비평 모델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에 대한 비평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주제를 폭 넓게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1)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

분석의 틀로 설정한 미술 비평 모델의 일곱 개 항목에 실제 쓰여진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중 패션 스타일 비평에 해당하는 기사 43개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를 살폈다.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이 현대 패션 비평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때문에 일곱 개 항목에 모두 부합해야만 하거나 특정 개수 이상의 항목에 부합해야만 현대 패션 비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평 기사 내 각 항목의 기술 순서와는 무관하게 분석하였다. 일곱 개 항목 중 여섯 번째 항목인 2차 해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개 항목은 모두 과반이 넘는 수의 기사에 적용되었다. 그 중 묘사와 형태 분석, 형태 평가의 항목은 매우 높은 적용 정도를 보이며 세 개의 미술 비평 항목은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에도 적절한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Table 3).

역사적 패션 스타일 도출은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에 과반이 넘게 적용되었으며(51.1%), 역사적 패션 스타일 도출은 항상 묘사와 동반되어 나타났다. 형태 분석과 형태 평가의 항목도 각각 하나의 기사를 제외하고 모두 역사적 패션 스타일 도출과 동반되어 나타났다. 역사적 패션 스타일 도출 항목은 묘사의 충분 조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 스타일을 주제로 하는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자체가 반드시 묘사 항목을 포함하며 일곱

Table 3. Application of criticism model proposed for contemporary fashion style criticism

Factor of applied criticism model	Frequency of criticism factor application (n = 43)	Percentage (%)
Derivation of historical fashion style	22	51.1
Description	43	100.0
Form analysis	37	86.0
Form evaluation	38	88.3
Primary interpretation	24	55.8
Secondary interpretation	19	44.1
Final evaluation	25	58.1

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정도로 적용되었다(100%).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비평에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색, 빛, 선, 형, 재질감 등 기본적인 조형적 요소에 대한 기술은 필수 조건인 것이다. 형태 분석 항목은 형태 평가와 함께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에서 높은 비율로 드러났으나(86%), 묘사 항목과 완벽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태 분석에 해당하는 조형적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은 묘사와 혼합되거나 묘사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은 형태 평가의 항목을 비평 대상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미적 가치를 객관적인 입장으로 언급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무리 물리적인 조형적 요소에 대한 평가라고 할 지라도 현대 패션 비평 특성상 비평가의 주관에 배제하고 패션 비평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었다. 형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 중 ‘객관적’이라는 조건을 제외하고, 작품 내용과 형태에 대한 미적 가치를 기술했을 경우 형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외하였을 때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에서 조형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묘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정도로 적용됨을 보였다(88.3%). 형태 평가는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에 있어서 역시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 번째 항목인 1차 해석 역시 앞선 형태 평가 항목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이라는 객관적 기술에 대한 조건이 현대 패션 비평 분석을 위한 정의에도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역시 현대 패션 비평은 객관적인 기술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이라는 조건을 배제하고 작품 해석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경우 1차 해석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에서 1차 해석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로 적용되고 있었다(55.8%). 2차 해석 항목 역시 기존 미술 비평 모델의 항목 중 가장 적은 수치로 적용되었다(44.1%). 패션 스타일을 주제로 하는 비평에서는 비평 대상의 외적인 조형성에 대한 기술에 집중하는 반면 그 이상의 해석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평가의 항목은 58.1%의 적용 정도를 보이며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에서 자주 발견되는 비평 요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은 미

적인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단순히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거나 혹은 조형적 요소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인 네 번째 형태 평가의 항목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특히 타 패션 제품이나 컬렉션 등 다른 패션 대상과 비교를 통해 비평 대상의 평가를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에서 최종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2) 현대 패션 스타일 외 비평

분석의 틀로 설정한 미술 비평 모델의 일곱 개 항목이 실제 쓰여진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중 패션 스타일 외의 나머지 여섯 개 주제에 관련된 비평 기사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를 살폈다. 패션 스타일 관련 비평 기사를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곱 개 항목에 모두 부합해야만 하거나 특정 개수 이상의 항목에 부합해야만 현대 패션 비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평 기사 내 각 항목의 기술 순서는 상관없이 분석하였다. 기존 비평 모델의 일곱 개 모든 항목이 현대 패션 스타일 관련 비평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적용 정도를 보였다(Table 4). 묘사와 2차 해석 항목만이 과반이 넘는 적용 수치를 나타냈으나 가장 많이 적용된 묘사 역시 66.2%의 비율에 그쳤다.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은 현대 패션 스타일 외 비평에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었다.

패션 스타일 외의 주제를 다룬 현대 패션 비평에서 미술 비평 모델 일곱 개 항목 중 역사적 패션 스타일 도출은 가장 적게 적용되었으며, 역사적 패션 스타일 도출 항목은 거의 대부분의 현대 패션 비평 기사에서 묘사와 동반되어 나타났다.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패션 스타일 도출 항목은 묘사의 충분 조건인 것을 재확인하였다. 패션 스타일 외 주제의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역시 묘사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적용 수치를 보이며 주제와 무관하게 현대 패션 비평에서는 시각적 조형 요소에 대한 묘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형태 분석은 역사적 패션 스타일 도출과 함께 비평 모델 항목 중 가장 적게 적용되었다(23.7%). 패션 스타일 외 주제에 대한 현대 패션 비평은 물리적인 패션 대상에 대한 비평이 아니기 때문에 조형적 요소에 대한 기술은 묘사에 그친 후 형태 분석을 생략하고 묘사에서 형태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형태 평가와 1차 해석 항목은 현대 패션 스타일 비

Table 4. Application of criticism model proposed for non contemporary fashion style criticism

Factor of applied criticism model	Frequency of criticism factor application (n = 43)	Percentage (%)
Derivation of historical fashion style	19	23.7
Description	53	66.2
Form analysis	19	23.7
Form evaluation	25	31.2
Primary interpretation	20	25.0
Secondary interpretation	41	51.2
Final evaluation	27	33.7

평과 동일하게 ‘객관적’,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의 조건을 배제하고, 비평 대상인 패션에 대하여 내용과 형태에 대한 미적 가치를 언급하거나 앞에서 기술한 것을 바탕으로 기술된 패션 제품에 대한 해석이 있다면 두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 평가와 1차 해석 항목은 매우 낮은 적용 수치를 나타내며 현대 패션 스타일 외 비평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에서 형태 평가 항목이 두 번째로 높게 적용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패션 스타일 관련 비평이 물리적인 패션 대상을 비평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그 외의 현대 패션 비평은 형태를 따질 수 없는 비가시적인 패션 현상에 주목해 비평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2차 해석의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적용 정도로 1차 해석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며 적용된 비평 모델의 일곱 개 항목 중 두 번째로 높게 적용되었다(51.2%). 패션 스타일 비평에서 2차 해석 항목이 가장 적게 적용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패션 스타일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현대 패션 비평은 조형적 요소에 대한 해석 보다 사회적, 문화적 등 비평 대상이나 비평 대상의 창작자인 개인의 맥락에 근거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 평가의 항목은 33.7%의 적용 수치를 보이며 현대 패션 스타일 외 비평에서도 현대 패션 스타일 비평과 마찬가지로 최종 평가가 부재한 경우가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3) 현대 패션 비평을 위한 모델 설계

미술 비평 모델의 일곱 개 항목이 현대 패션 비평 기

사에 모두 적용되는 빈도는 총 121개 중 열 일곱 개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Table 2). 분석 대상인 현대 패션 비평 기사가 미술 비평 모델의 일곱 개 항목에 모두 부합한다고 해서 완벽한 현대 패션 비평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일곱 개 항목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현대 패션 비평 기사라고 해서 그것이 현대 패션 비평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일곱 개 항목에 모두 적용되는 현대 패션 비평 기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술 비평과 같이 대부분 물리적인 대상에 대해 평가하는 패션 스타일에 관련된 기사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인 미술 작품만을 논하는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로는 다양한 주제를 논하는 현대 패션 비평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미술 비평 모델 일곱 개 항목 중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는 현대 패션 비평 기사의 수가 일곱 개 항목 모두가 적용되는 기사 수 보다 많다는 결과 역시 앞선 결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21개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중 19개의 기사가 미술 비평 모델의 일곱 개 항목 중 어떤 것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현대 패션 비평에서 패션 마케팅이나 패션계 인물, 패션 시스템을 주제로 다루는 기사가 빈번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들에 미술 비평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 빈도 수가 높게 나타났다. 현대 패션을 위한 비평 모델 구축 시 현대 패션 비평의 다양한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범용적(汎用的)이고 다양한 각도의 현대 패션 비평 모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대 패션 비평에 적용하기 위해 번안된 미술 비평 모델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 비평 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기존의 비평 모델을 현대 패션 비평에 맞도록 가감 및 조정하였다. 미술 비평을 번안했던 역사적 패

션 스타일 도출의 항목은 현대 패션 비평을 위한 모델에서 ‘역사적 패션 스타일 묘사’로 수정하여 유지하였다. 전체 결과 상의 적용 수치는 가장 낮은 정도를 보이며 현대 패션 비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었지만 묘사의 충분 조건의 역할을 하는 등 추후 형태 분석과 형태 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묘사와 형태 분석 항목은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형태 분석 항목이 부재한 경우가 높은 것을 감안해 가장 높은 적용 수치를 보이고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항목인 묘사로 두 항목을 통합하며 ‘형태 묘사’로 명명하였다. 형태 평가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현대 패션 비평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에 있어 ‘객관적’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였다. 항목의 명칭은 마지막 항목인 최종 평가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형태 평가에서 ‘외부적 평가’로 변경하였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조형적 요소에 대한 평가만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해석의 단계에서 1차 해석과 2차 해석은 하나의 ‘해석’으로 통합하였다. 형태 평가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정의에 있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였으며, 보다 많이 적용되었던 2차 해석 위주의

포괄적이고 개인적 맥락과 배경에 근거한 해석으로 조정하였다. 최종 평가 항목은 앞서 조형적 측면만을 평가하는 외부적 평가와 반대로 ‘내부적 평가’로 수정하여 유지하였다. 현대 패션 비평 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현대 패션 비평에 있어서 외부적 평가가 우선적이고 비교적 필수적인 항목이라면, 내부적 평가는 비평가와 비평 대상에 따라 보류 혹은 부재할 수 있다. 미술 비평 모델을 현대 패션 비평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면 결론적으로 역사적 패션 스타일 묘사, 형태 묘사, 외부적 평가, 해석, 내부적 평가의 다섯 단계로 변경 및 정리된다(Table 5).

2. 현대 패션 비평의 특수성

미술 비평 모델의 현대 패션 비평 적용 정도에 대하여 살핀 결과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미술 비평 모델에는 간과되어 있지만 향후 현대 패션을 위한 고유의 비평 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하여 살펴해보았다. 수집된 121개 현대 패션 비평 기사를 미술 비평 모델의 일곱 개 항목에 따라 분석했을 때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는 않지만 현대 패션 비평에서는 빈번히 드러나며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서 현대 패션 비

Table 5. Criticism model for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Factor of applied criticism model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model	Final operational definition of art criticism model for application to fashion criticism
Derivation of historical style	Description of historical fashion style	- Is there a description of the fashion stylistic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fashion history? - Are the affected fashion styles, schools, times, regions, etc., mentioned? - Is there a description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garding the specific historical fashion styles involved?
Description Form analysis	Form description	- Does it describe the basic formative elements such as colors, lights, lines, shapes, and textures as they are seen?
Form evaluation	External evaluation	- Does it mention the aesthetic value of the content and the form of the fashion thing?
Primary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 Is there a interpretation of the fashion things described based on what has been described above?
Secondary interpretation		- Is there an interpretation based on the tendency, view, cultural, historical,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ext of fashion designers? - Is there an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human life?
Final evaluation	Internal evaluation	- Does it evaluate the aesthetic value of fashion products? - Does it judge the advantage over other fashion products? - Is it rated relative to other fashion products? - Is there a description for evaluating originality? - Is there a description for judging technical perfection?

평의 특수성을 의미한다. 총 여섯 개로 구분되어 상업성, 인체, 코디네이션, 비평가의 개성, 트렌드, 인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Table 6).

1) 상업성

현대 패션 비평은 패션의 상업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에서는 간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패션은 미술 작품에 비하여 인간이 일상 생활에서 직접 사고 파는 재화로 여겨지며 상대적으로 소비재의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현대 패션 비평은 가격과 관련한 평가가 필요하다. 가령 가성비로 일컬어지는 가격에 대비한 성능이나, 가심비라고 일컬어지는 가격에 대비한 시각적, 심리적 만족감 등 가격을 고려했을 때 발생하는 패션 제품의 효용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의 디자이너 생애와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다룬 기사에서는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 클래식 랩 드레스는 적당한 가격으로 여성이 권위있고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현대 패션의 가격적인 면을 강조하며 기술하고 있다(Givhan, 1996).

현대 패션의 가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상업성에는 패션 비즈니스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현대 패션 비평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패션 마케팅이나 패션 비즈니스

에 관련된 비평이 패션 스타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드러냈다.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은 물리적인 미술 작품 자체만을 논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같이 패션의 외부적인 항목을 다루는데에는 매우 부족함을 보였다. 패션 비평에서는 창작자 뿐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의 소유자나 투자자 혹은 기업 단위의 비즈니스 전략 등에 대한 기술 항목이 요구된다. 상업성은 현대 패션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나 패션 브랜드 혹은 제품 고유의 헤리티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다. 프레젠테이션은 패션 제품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기술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컬렉션에 대하여 보고하는 비평에서 패션 제품 외의 컬렉션 구성 요소인 음악이나 무대 구성 등에 대한 기술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베르사체(Versace)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일깨우며 새로운 지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컬렉션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기사가 전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것의 대표적 예시이다(Friedman, 2018). 패션 브랜드나 제품 고유의 헤리티지는 패션이 패션 그 이상의 의미 혹은 내포된 의미를 지니는 것에 대해 기술할 경우에 요구된다. 아이콘(icon)화 된 패션 제품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고유 의미나 숨겨진 의미에 대한 기술을 가리킨다. 현대 사회와 문화에서 남성의 수트나 벡타이가 가지는 의미와 같

Table 6. Uniqueness of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Uniqueness	Definition	
Commerciality	Price	Description of cost-effectiveness and price to satisfaction
	Marketing	Description of business strategies of creators as well as owners, investors, and companies of fashion brands
	Presentation	Description of methods for presenting fashion products
	Brand heritage	Description of unique or hidden social and cultural meanings of iconized fashion styles and products
Human body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the human body	Description of the f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products and the human body when fashion products are put on the human body
	Wearing sensation	Description encompassing the feelings associated with wearing a fashion item as well as the sensations experienced by the wearer or appreciator
Coordination	Description of the f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products and other fashion products for overall outfitting including multiple items when wearing fashion products	
Critic's individuality	Description of critic's own interpretation based on no particular grounds but rather on their personal tastes and knowledge	
Trend	Macroscopic description of a specific season or a specific trend in fashion	
Persons	Description of creators or other fashion figures such as their past life or achievements	

은 것을 기술할 때 요구되는 항목이다(Givhan, 2017a).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을 패션 비평에 적합하도록 일차적으로 정리한 현대 패션 비평 모델에서 상업성의 일부가 형태 묘사 혹은 외부적 평가 단계에서 일부 다뤄질 수 있다. 상업성 중 패션 대상의 프레젠테이션 방식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 가격, 패션 브랜드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마케팅 측면, 브랜드의 헤리티지 등은 일차적으로 도출된 현대 패션 비평 모델에서는 다루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의 추가가 요구된다.

2) 인체

현대 패션 비평의 특수성으로 도출된 두 번째는 인체에 대하여 기술하는 항목이다. 패션 제품과 인체와의 관계 및 착용감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미술 작품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성된 것으로 감상자와 미술 작품 간의 일정한 물리적인 거리가 유지되지만 패션은 패션 제품 자체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감상자인 소비자 인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착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패션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 외에 패션 제품이 인체 위에 놓였을 때 패션 제품과 인체와의 조형적 관계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는 항목이 필요하다. 패션 제품은 착용하는 사람의 성별, 연령, 인종, 피부 등과 어우러짐으로 인해 기존에 패션 제품만을 놓고 평가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비평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제 여우조연상 후보의 플러스 사이즈 체형에 따른 드레스 디자인 선택과 착용한 모습에 대한 묘사 및 평가에 대한 기사가 대표적이다(Givhan, 2017b).

앞서 패션과 인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시각적인 부분에 국한된 기술이라면 추가적으로 주관적인 착용감에 대한 기술 역시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부분을 의미하는데, 간단히 촉감에서 시작해 착용자가 해당 패션 제품을 착용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착용자를 바라보는 감상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기술을 가리킨다. 창작자인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소비자인 착용자가 선택한 패션에 대한 기술로 디자이너의 관점이 아닌 착용자의 관점에서 패션에 대해 해석 및 평가하는 것이다.

인체에 대한 부분 역시 일차적으로 도출된 현대 패션 비평 모델 중 형태 묘사와 외부적 평가 항목에서 고려 가능하다.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은 패션 제품과 인체

사이의 조형적 관계에 대한 부분 정도이다. 물리적인 대상만을 위한 일차 모델에서는 비가시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촉감이나 착용감에 대한 항목이 부재하다.

3) 코디네이션

인체 항목에서 패션 제품과 인체와의 관계에 대해 고려했다면 세 번째 특수성으로 도출된 코디네이션은 두 개 이상의 패션 제품이 형성하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코디네이션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복수의 패션 제품의 관계에 대한 요소로 일차 현대 패션 비평 모델 중 형태 묘사와 외부적 평가 항목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논할 수 있다. 패션은 하나의 패션 제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소비자가 착용할 시 필연적으로 다른 패션 제품과 만나게 된다. 단순히 해당 패션 제품의 형태 분석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부족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현대 패션 비평 기사 중 영화제 시상식 레드 카펫(red carpet) 위에서 한 남성이 턱시도 차림에 탐스(TOMS) 신발을 함께 매치하는 것에 대한 기술 등에서 요구되는 항목이다(Givhan, 2016). 단일의 패션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착용 시 복수의 패션 제품을 포함하는 전체의 차림새에 대한 조형적 관계 기술 항목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다.

코디네이션에 대한 기술은 해당 패션 제품 창작자의 개입 없이 착용자나 제3의 인물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패션 제품의 조형적 요소 및 해석에 대한 기술까지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것이 창작자에 의한 두 제품 간의 조형적 요소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라면 조형 요소의 재구성 측면에서 창작자의 의도는 제거되고 기업과 유통을 담당하는 입장의 바이어(buyer), 비주얼 머천다이즈(visual merchandiser) 또는 소비자 입장인 착용자 등 패션 제품 자체의 창작과는 무관한 별개 인물의 의도로 이루어진 패션 제품의 조형적 요소나 그들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독립적인 패션 소매 업체 운영자의 다양한 패션 제품 선택 및 조합과 이를 바탕으로 드러난 해당 패션 제품에 대한 새로운 견해에 대한 기술이 대표적이다(Horyn, 2008).

4) 비평가 개성

네 번째 현대 패션 비평의 특수성인 비평가의 개성은 비평가 고유의 해석을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틀로 사용한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에 존재하는 1차 해석과 2차 해석은 모두 작품

의 조형적인 요소를 근거로 하거나 혹은 예술가인 창작자 개인의 사회 문화적, 이념적 등의 맥락을 근거로 기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대 패션 비평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지하지 않고 비평가 개인의 취향과 지식 등을 바탕으로 패션에 대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히 보여졌다. 미술 비평 모델을 현대 패션 비평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다섯 가지 항목 중 네 번째 ‘해석’과 별개로 비평가 개인의 고유 해석을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이 함께 필요하다. 앞선 세 개의 특수성과 달리 비평가의 개성은 패션 비평 대상에 대한 비평가의 주관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의 일차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논하기 어렵다. 비평가 고유의 해석에 대한 필요성은 디자이너 해방, 패션 생태계의 포용, 에코에 대한 주제로 비평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기사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났다(Friedman, 2020).

5) 트렌드

유행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요소인 현대의 패션에서는 비평에 있어서 패션 제품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해당 시즌을 관통하는 유행, 즉 트렌드에 대한 논의 역시 빈번하게 드러난다. 패션 비평가가 다음 시즌 나르시소 로드리게즈(Narciso Rodriguez), 우가로(Ungaro) 등의 컬렉션에 방문하고 난 후 해당 시즌 전체에 대해 시즌 단위로 조형성이나 분위기를 평가한 기사가 대표적이다(Horyn, 2007). 기존의 모델에서도 존재하는 특정한 조형적 요소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평가에서 일부 다를 수 있겠으나 트렌드 역시 비가시적인 현상에 대해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대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일차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 특정 시즌이나 패션의 특정 흐름에 대하여 거시적인 시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이 함께 필요하다.

6) 인물

현대 패션 비평에서는 패션 관련 인물에 대한 기술 항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인물의 과거 삶이나 개인의 업적 등을 의미하며 크게 패션 창작자에 대한 것과 창작자 외 타 패션계 인물을 논하는 것으로 나뉜다. 패션 창작자에 대한 것은 패션 제품을 근거로 하는 창작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과거의 삶이나 개인의 업적 등 창작자 자체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창작자 외 인물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여 다루는 것은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패션계의 영향력 있는 인

물에 대한 비평문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는 요소가 간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물은 일차 모델의 항목 중 역사적 패션 스타일 묘사나 해석에서 일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비평 대상 자체가 패션 제품이 아닌 패션에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 모델의 항목으로 적절히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V. 결 론

패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전문가 수준의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는 대중의 활동이 쉽게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비평의 영역에 있어서 패션은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대상이다. 예술의 각 장르가 고유의 비평 모델을 갖추고 활발하게 비평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패션에서의 비평은 물론 패션 비평에 관한 기초 연구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패션은 고유의 담론 체계를 가진 독립적인 영역이자 개별의 역사적 실체로 인지될 필요가 있다. 미술 비평의 맥락을 그대로 사용해 패션을 단편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패션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의 비평 모델이 설립된다면 현대 패션 비평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의 범위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 비평의 범위를 설정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이루어진 현대 패션 비평 기사를 분석하여 그 역할과 특성을 밝혀, 앞으로 현대 패션 고유의 비평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이 가시적인 물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수집된 현대 패션 비평 사례 역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패션 제품이나 스타일에 대한 주제와 그 외의 주제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패션 제품이나 컬렉션 등 패션 스타일에 관련한 현대 패션 비평에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을 적용한 결과 비평 모델의 일곱 개 항목 중 2차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개 항목이 과반이 넘는 적용 빈도를 보이며 비교적 높은 정도로 기존 미술 비평 모델의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션계 인물, 패션 마케팅, 패션 시스템, 패션 미학, 패션계 이슈, 행사 패션 등 패션 스타일 외 나머지 주제에 해당하는 현대 패션 비평은 대부분의 비평 모델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적용 정도를 나타내며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현대 패션 비평은 패션 스타일에 대한 것 뿐만 아니

라 높은 빈도로 패션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은 미술 비평이 다루는 대상과 유사하게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패션 물체에 대한 비평에는 효과적이었다. 패션 스타일 외 그 밖의 다양한 패션 시스템이나 현상 등을 다루는 것에는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의 적용이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현대 패션 비평 모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양한 범위를 다루는 현대 패션 비평에 적절하도록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 일곱 개 항목에 대하여 통합 및 번안, 수정을 거쳐 일차적으로 역사적 패션 스타일 묘사, 형태 묘사, 외부적 평가, 해석, 내부적 평가의 다섯 개의 항목으로 조정하였다.

기존의 미술 비평 모델로는 다룰 수 없지만 현대 패션 비평에서는 빈번히 다루지며 간과되어서는 안 될 요소가 드러났다. 상업성은 가격,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브랜드 헤리티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대 패션 비평에서 가장 큰 범위이자 중요한 특수성으로 나타났다. 인체는 패션과 패션을 직접 착용하는 인간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작품과 관람자 간의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미술 비평과 가장 크게 대비되는 현대 패션 비평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코디네이션, 비평가 개성, 트렌드, 인물로 총 여섯 개의 현대 패션 비평 특수성이 도출되었다. 특수성 중 일부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일차적인 비평 모델의 항목을 확장하여 다룰 수 있지만 대부분 각각 추가적인 비평 요소로 고려하여 비평 모델 항목의 추가가 요구된다.

현대 패션 비평이 다각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단일한 현대 패션 비평 모델을 구축하는 것보다 현대 패션 비평의 세부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별적인 현대 패션 비평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패션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조정된 미술 비평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현대 패션 비평의 특수성을 주제에 맞게 개별적으로 가감 및 조합하거나 적용해 상황별로 적합한 현대 패션 비평 모델을 사용하는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패션 비평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현대 패션 비평에 관한 학술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부분 미술 비평 모델의 근간이 되는 전통적

인 미술 비평 모델만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 비평을 분석하였다는 것이 한계점임을 밝힌다. 시대에 따라 변화된 현대 미술 비평과 현대 패션 비평의 비교 분석 연구를 제안하며, 실리적인 현대 패션 비평 모델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1. 사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6. 저자의 기여

SP는 자료 수집과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원고 작성을 담당하였고, JH는 분석 및 해석과 검토를 담당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박수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생
하지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References

An, H., & Park, M. (2020). Approaching fashion design trend applications using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Fashion and Textiles*, 7(34), 1–15. <https://doi.org/10.1186/s40691-020-00221-w>

Carney, J. D. (1994). A historical theory of art criticism.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28(1), 13–29. <https://doi.org/10.2307/3333153>

Carroll, N. (2009). *On criticism*. Routledge.

Choi, K. H. (2014). A theoretical reconsideration of contemporary fashion criticism.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6(1), 66–78. <https://doi.org/10.5805/SFTI.2014.16.1.66>

Feldman, J. D. (1972). *Varieties of visual experience: Art as image and idea*. Prentice-Hall.

Friedman, V. (2018, December 3). The Versace safety-pin dress is back.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12/03/fashion/versace-safety-pin-dress-prefall.html?sr>

- chResultPosition=1
- Friedman, V. (2020, February 4). It's almost fashion month! Here's what to know.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2/04/fashion/fashion-weeks-what-to-know.html?searchResultPosition=2>
- Givhan, R. (1996, January 5). Cut-rate princess.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lifestyle/1996/01/05/cut-rate-princess/c6007a05-1f4d-4a48-b18b-fa7be0d7edc7/>
- Givhan, R. (2016, February 28). The Oscars red carpet showed us the most diversity of the night.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the-oscars-red-carpet-shows-the-most-diversity-of-the-night/2016/02/28/4a45b072-de78-11e5-8d98-4b3d9215ade1_story.html
- Givhan, R. (2017a, December 6). A history of the final dying days of the power suit.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a-history-of-the-final-dying-days-of-the-power-suit/2017/12/06/5973064a-c8b3-11e7-8321-481fd63f174d_story.html
- Givhan, R. (2017b, February 26). The most eye-catching red carpet look at the Oscars wasn't a dress. It was a blue ACLU ribbon.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the-most-eye-catching-red-carpet-look-at-the-oscars-wasnt-a-dress-it-was-a-blue-aclu-ribbon/2017/02/26/12d69eb6-fc6e-11e6-8ebe-6e0dbe4f2bca_story.html
- Granata, F. (2021). *Fashion criticism: An anthology*. Bloomsbury Publishing.
- Horyn, C. (2007, December 10). She's been baking! *The New York Times*. <https://archive.nytimes.com/runway.blogs.nytimes.com/2007/12/10/shes-been-baking/?searchResultPosition=1>
- Horyn, C. (2008, December 3). Just turn right. *The New York Times*. <https://archive.nytimes.com/runway.blogs.nytimes.com/2008/12/03/just-turn-right/?searchResultPosition=1>
- Hwang, H. J. (2013). *A study on the carnivalesque image and its semantic analysis in modern fashion: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Bakhtin's carnival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 B. (1997). *Fashion as domain of aesthetic inquiry: a postmodern assessment of critical writing son fashion in America between 1980 and 199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Kim, S. B. (1998). Is fashion art? *Fashion Theory*, 2(1), 51–71. <https://doi.org/10.2752/136270498779754515>
- Kim, S. E., & Ha, J. (2018). A case study on the changing aspects of modern fashion trend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2(4), 708–725. <https://doi.org/10.5850/JKSCT.2018.42.4.708>
- Lee, Y.-Y. (2006).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aesthetic research on dress: Focused on a model for dress criticism.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11), 35–42.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0606717334295&dbt=JAKO&koi=KISTII.1003%2FJNL.JAKO200606717334295>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Miller, S. (2007). Fashion as art; is fashion art? *Fashion Theory*, 11(1), 25–40. <https://doi.org/10.2752/136270407779934551>
- Min, J. S. (2008). On the nature and role of art criticism. *Mihak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54, 39-72.
- Park, H. R. (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Art appreciation and educational art criticism]. Sigongsa.
- PMG. (Ed.). (2022). Journalism. In *current affairs dictionary*.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5860&cid=43667&categoryId=43667>
- Son, M. Y., & Lee, S. H. (2010). *한국의 패션 저널리즘: 미디어로 보는 패션의 역사와 경향* [Korean fashion journalism: the history and trends of fashion viewed through media]. Wings of Knowledge.
- Sparshott, E. F. (1967). *The concept of criticism: An essay*. Oxford University Press.
- Steele, V. (2012). *Fashion and art* (A. Geczy, & V. Karaminas, Eds.). Bloomsbury Publishing.
- The Pulitzer Prizes. (2006). Robin Givhan of the Washington post. <https://www.pulitzer.org/winners/robin-givhan>